

# 공동체은행 빈고 건강보험계 회칙

## 제 1 장 : 총칙

- 명칭 : 공동체은행 빈고 건강보험계
- 목적 :
  - 본 계는 계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공동체의 삶을 도모한다.
  - 병원비 등 예기치 않은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상호 부조한다.
  - 대안적인 경제 질서를 공부하고 실험한다.
- 기간 : 본 계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. 이후 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.
- 개정 : 본 회칙은 계원 2/3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: 모임과 구성

- 가입 : 계원은 빈고 조합원으로서 회칙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.
- 모임 :
  - 계모임은 온라인/모바일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진행한다.
  - 계모임의 중요 정책과 깃돈의 사용은 계모임에서 결정한다.
- 유사 :
  - 계모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명의 유사를 투표+추첨을 통해서 결정한다.
  - 유사는 재정을 담당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 - 유사는 깃돈을 사용할 일이 발생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 - 유사는 한 명을 계원을 지정해서,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해당 계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.
  - 활동에 따라서 적절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 3 장 : 계원의 권리와 의무

- 깃돈은 계원들의 상부상조와 공제협동조합의 실험을 위한 것으로, 본전과 식리를 기대하지 않는다.
- 모든 계원은 계모임에 참가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.
- 모든 계원은 회칙에 의하여 매달 1만원의 깃돈을 납부한다.
- 출자금이 0원으로 깃돈을 납부하지 못하면 3개월 후 계원의 자격이 일시정지된다.
- 깃돈은 계모임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## 제 4 장 : 깃돈의 사용

- 깃돈의 사용은 계원의 제안과 계모임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출한다.
- 깃돈의 사용

- 불의의 질병과 사고로 병원에 가거나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,
- 본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의 50%~100%까지 사용할 수 있다.
  - ▶ 기본은 50%로 하되, 계원의 상황과 질병의 종류에 따라 100%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비율은 계모임을 통해 결정한다.
- 1회에 전체 깃돈 총액의 25%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.
  - ▶ 예를들어, 계원이 20명이라면, 년 12만원씩 납부할 때, 전체 깃돈은 240만원, 1회 최대 60만원까지 보장을 4회 할 수 있다. 계원이 100명이라면, 전체 1200만원, 1회 300만원까지 가능하다.
- 깃돈이 바닥나면, 추가적인 사용은 자동 중지되며, 계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깃돈을 추가 납입할 수 있다.

## 제 5장 깃돈의 관리와 빈고

- 깃돈의 보관은 빈고에 공동체 계좌를 만들어 예치한다.
- 깃돈은 각 계원의 빈고 출자금에서 자동 출금한다.
- 빈고는 깃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예상 깃돈 총액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.
- 빈고와 공동체간의 연대의 차원에서 예치 또는 대출에 따른 이자는 상호간에 없는 것으로 한다.
- 해방계와 빈고는 공제협동조합의 실험을 함께하며 성과를 나눈다.

## 제 6장 잔액의 처분

- 계 기간 종료 후 총회를 거쳐 잔여 깃돈을 처분한다.
- 잔액의 처분 아래 항목으로 할 수 있다.
  - 유사에 대한 활동비.
  - 이후 계 운영을 위한 적립금 적립.
  - 계원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의료비 지원.
  - 계원들의 빈고 출자금으로 재분배
  - 빈고 선물

## 제 7장 연장 또는 해산

- 총회를 통해 계모임의 연장 또는 해산을 결정한다.
- 해산 시 적립금은 빈고 또는 유사 목적의 단체로 이전한다.